



이 세상이 벌어진 것은 바로 나로부터입니다

(지난 호에 이어서)

그런데 '과거는 지나갔으니가 없고' 했던 말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부처님께서 하셨느냐 하면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입력된 것이 자기 영혼에 한데 붙어 돌아가니까 악업 선업 지은 것이 바로 그 영혼과 더불어 같이, 정자 난자를 비롯해서 남의 몸을 빌려서 부모로 삼고선 인간이 세상에 탄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과거는 지나갔으니가 없다는 것은 지금 여러분의 몸속에 악업 선업이 다 들어 있어서 그러는 것이거든요. 다 들어 있어서 거기서 화도 나게 하고 거짓말도 하게 하고, 사기도 하게 하고 좋은 일도 하게 하고, 착한 일도 하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변연히 알면서도 그냥 도둑질하게 하고 강도질하게 하고 이러거든요. 이래도 아니라고 부정하시겠습니까?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이므로 내가 지금 이끌어 드리는 것은, 모두가 마음이나가 모두가 그놈들이 한 거니까, 한마을 속에서 한 거니까 한마을 속에서 해결해라 하고 거기가 되입력을 해라 이 소립니다. 즉 입력이 돼서 나오는 데다가 다시 입력을 한다면 앞서 입력된 거는 없어집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 팔자 운명을 바꿀 수가 없어요. 독 안에 들어도 못 면해요. 자기가 나왔던 자리로 다시 디밀어 넣는 수밖에 없어요. 그 구멍밖에 없어요. 그 모든 것을 없애려면 앞서 입력이 됐다가 지금 현실로 나오는 자리에다가 다시 입력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없애지 못하니가 어떠한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영계성 업보성 윤회성 세균성 인과성이 천체..., 말로 다 어떻게 하리까. 그것이 그대로 입력이 된 거기 때문에 살살 그냥 나오는데, 병이 났다고 시식을 하고 경을 외우고 아무리 해도 그게 됩니까? 이렇지 않다면 말이 있죠. 어떻게 말을 하다 보니까 건곤전동해 가는 것 같습니다. 하하하... 하지만 깊이 생각하신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몸속에 그렇게 들어 있는 그 의식들이 내가 마음 쓰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따라 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병원에서 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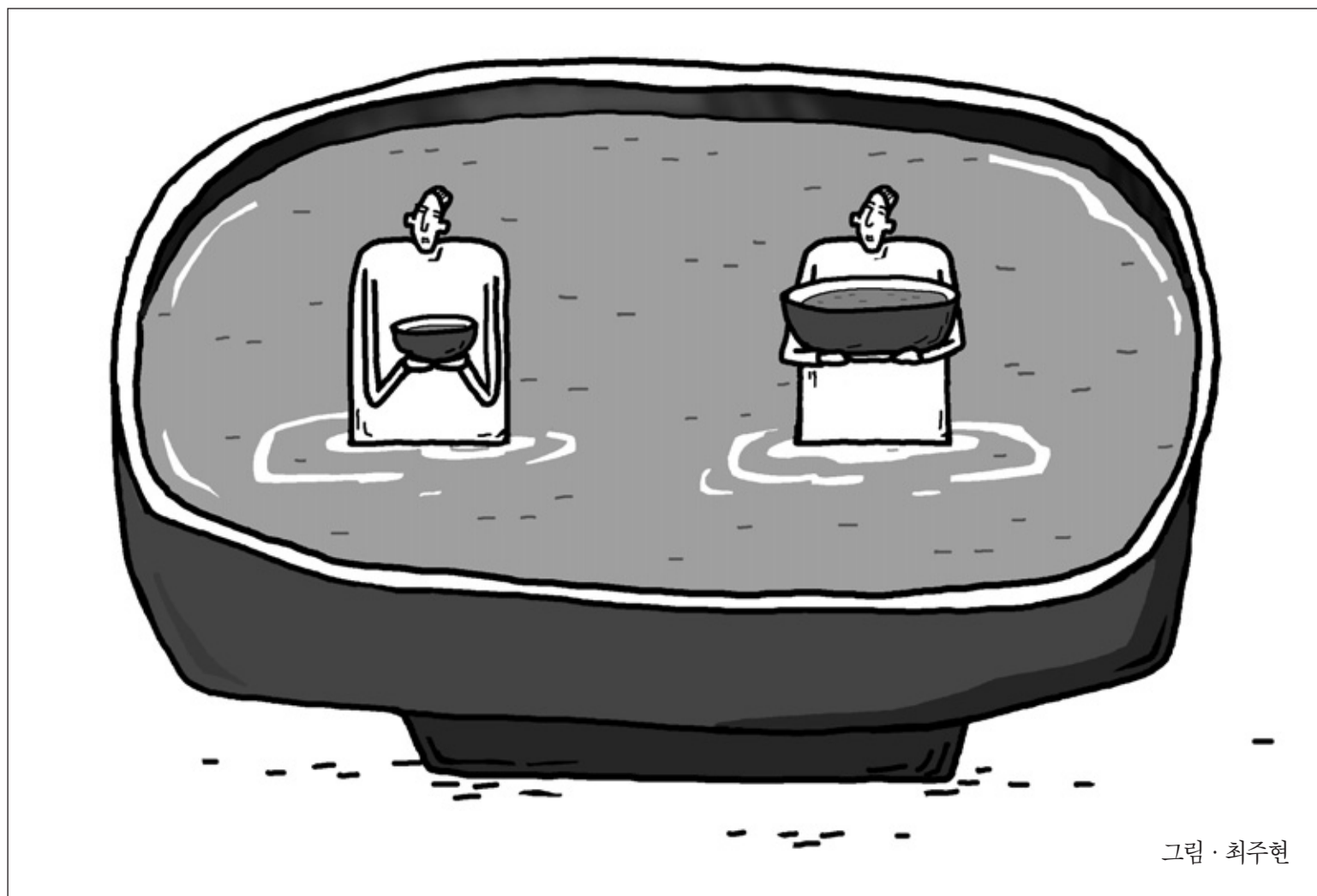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고쳐서 내쫓는다 하더라도 '음, 네 속에서 그렇게 만들어서 네 몸을 내가 아프게 할 수 있어? 내가 한 거니까 내가 낫게 할 수 있잖아!' 하고 거기가 되입력을 해서 되놓는다 이 소립니다. 그래서 '구정물을 새 물로 대치를 해서 써라.' 이 소리죠. 내가 하는 이 한마디 속에 생활하는 일체가 다 들어 있습니다. 용도에 따라서 어떤 거든지 말합니다.

여러분이 처음에 들 때는 아리송하겠지만 자꾸자꾸 듣다 보면, 자꾸자꾸 읽다 보면, 자꾸 듣고 읽고 이렇하다 보면 '어, 그렇게 가는구나!' 하실 겁니다. 그래서 자식들도 부모에게 많이 달려 있고 회사 직원들도 회장한테 많이 달려 있고 스님네들도 은사에게 많이 달려 있고, 허허허... 여러 가지 마음에 따라서 몸이 따라가고, 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자기 몸과 정신계를, 내면세계를 완벽하게 굳혀

서 아주 금강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평등공법의 자유인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은 거기를 느껴 보지 못했으니가 그렇겠지만 일체가 그렇다는 것을, 이렇게 하나를 예로 들어 봅시다. 언젠가 다리가 하나도 없어서 '다리가 없는데 어떻게 하지? 감장은 해야겠고 다리가 없잖아?' 이랬어요. 그냥. 근데 그 이튿날 다리가 열 개가 들어왔어요. 그건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권리가 있어요. 여러분한테 다 부처라고 했죠. 가만히 있으면 부처고 생각을 냈다 하면 법신이고 몸을 움직여라 하면 보신이고 화신이에요. 또 아프다고 그러면 약사가 되고 명이 짧다고 하면 칠성 부처가 되고 좋은 데로 못 갔다고 하면 지장이 되고, 한마을 속에서 전부 나오는 거지 지장 따로 있고 관세음보살 따로 있고 죄 따로 있습

니까? 그러니까 만 명이 부처를 이루었다 하더라도 부처는 하나지 둘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공했다고 했어요. 얼마나 귀중한 소립니까? 얼마나 무변한 소립니까?

'너 나 따로 없느니라. 바다를 삼켰다가 모든 만 중생들에게 토해 줄 때는 바로 작은 그릇도 내 그릇이요 큰 그릇도 내 그릇이니라. 큰 그릇에 담기려면 내가 들어가야 물이 담기고, 작은 그릇에 담기려면 내가 들어가야 물이 담기느니라. 돼지를 하나 건지고 개미를 하나 건진다 하더라도 개미 속에 내가 들어가야만 개미가 저항력을 느끼지 않고 받아들여서 개미를 건질 수가 있느니라. 그러니 이 세상 만물만 생이나 아님이 하나도 없으니 내가 어떤 것이 될 때에 나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 마음 가짐가짐에 따라서 지옥도 있는 거고 천당도 있는 거고, 순간 찰나찰나 돌아가느니라.' 그러

니 부처라는 게 없는 게 부처예요. 부처라고 이름지어서 말할 수 없는 게 부처예요. 그리고 이래고요. 여러분이 여래의 집이 아닙니까?

자생중생들을 제도하는 것도 여러분의 마음에 달려 있어요.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자생중생들을 한마을로 통쳐서 나가 따로 없이 하는 것이 항복받은 것입니다. 자생중생들부터 건지지 못하고는, 유마힐 거사도 '내 병이 나으려면 중생들이 다 나야 내가 건강하게 나올 수 있겠다.' 했죠.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도 몸속에 그 생명이 건재하게 작용을 해 주고 건강해야 자기 몸이 건강하지 아, 그것들이 쓰러지는데 내 몸이 온전하겠습니까? 뜻과 행과 말이 똑같아야 그것이 부처님 법이라고 했습니다. 또 세상의 진리와 생활 돌아가는 이치와 부처님의 뜻이 같이 돌아가야 부처님 법이라고 자부할 수 있겠죠. 거기서 하나라도 저촉된다면 이것은 부처님의 법도 아니고 본래 여러분의 법도 아니죠.

여러분이 이 한생각을 지금 시발점에서 잘 하셔야 합니다. 내가 내 가정을 이루고 내 자식을 기르면서도, 부부 생활을 하면서도 또는 형제간에 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남의 탓을 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자기가 현재 잘했는지 못했는지, 못났는지 잘났는지 자기가 이 세상에 났으니가 자기 탓이지 어찌 남의 탓입니까? 내가 나기 전에 그 사람이 생겼다고 할 때 그 사람을 탓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없는데? 내가 먼저 태어났으니가 잘했든 못했든 내 탓이다 이 소립니다.

그래서 오분향의 첫번째 '계향' 도 마음의 계향이지 어떤 이론의 계향이 아닙니다. 첫째, 부처님께 누가 되게 하지 말고 은사나 사제 사형 모두에게 누가 되지 않게 전체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도리에서, 잘못됐는지 잘했는지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려라. 남의 탓으로 절대 돌리지 마라. 내 탓으로 돌린다면 화복도 가져올 수 있고 질서도 가져올 수 있고 또는 자비도 가져올 수 있고 누가 되지 않게 할 수 있고 모두가 단합이 될 수 있는 거죠. 이 몸속에서도 생명체

☞ 26면으로 계속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 · 광고계약 · 기사제보...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지 사 명	지사장명	연 락 처
부 산 지 사	이 재 진	051)632-0064 / 011-488-7745
대 구 지 사	손 문 철	053)768-8008 / 016-813-8008
광주전남지사	양 행 선	062)384-3009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조 동 제	063)910-8977 / 011-9642-7733
영 주 지 국	박 영 애	054)634-3429 / 010-9373-3778
경남 남부지사	청운스님	055)746-9778 / 011-870-0021

권 선 문

삼보에 귀의하옵고
저희 대한불교고승연합회 복지 지원단에서 인천시 강화군 화도면에 부처님과 불자를 위해 한생을 바치신 노스님들의 귀의처가 될 고승복지원 건립 기금 마련을 위하여 귀사찰, 암자 기도원에서 불필요한 폐초 및 불기를 수거하고 있사오니 많은 협조바랍니다.

수거품 : 폐초, 파불상, 촛대, 향로, 제기, 불화, 공양미 등
복지 기금마련을 위하여 양초 판매하고 있사오니 협조바랍니다.

예금주 : 대한불교고승연합회 / 농협 1124-01-138620

= 자 비 실 천 =

- 수거품이 있으실 때 연락주시면 방문 또는 택배업체 보내드리겠습니다. (택배비는 복지단에서 부담합니다)
- 보내실곳 : 경기도 광주시 실촌면 삼리 227번지 고승복지단(앞) 전화 031)764-3511 / 팩스 031)764-4711
- 복지지원단에서는 스님 수행하시는데 불편한 각종 애로 사항을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대한불교고승연합회 복지 지원단
단장 경천 배상

자생증생을 제도함도 여러분 마음에 달려있어요

☞ 25면에서 계속

들이 단합이 되지 않고 너 나가 벌어진다던 게 바로 간암이니 위암이니 뭐, 백혈이니 미친 병이니 이런 게 나타나게 되죠. 이 몸뚱이 속 하나도 그런데 이 세상 세계를 볼 때에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나 내 몸뚱이가 돌아가는 이치와 세계가 돌아가는 이치가 하나다 이 소립니다.

한생각이 참 중요합니다. 강도가 칼로 사람을 찌르려고 들어왔다 하더라도 주인공에다 맡겨서 진실하다면, 내 색이 몸이니까 뿌리에 진실하게 '야! 내 뿌리만이 할 수 있다.' 이렇다면 아마 강도가 칼을 놓고 갑니다. 자기가 자기 죽일 순 없거든요 자기 손가락 하나가 자기 손가락 하나를 자를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떠한 마음을 가졌든지 마음에 의해서 몸은 움직여가게 되겠습니까? 왔다가도 '아이구, 뭐 해이지.' 하고 일어나지 마음 없이 할 수가 없겠지요. 마음을 내지 못하면 목석이나가 없는 거고 생명이 없으면 무효고 또 목석이 없어도 무효입니다. 이 세상이 벌어진 것은 나로부터입니다.

부처님께서 49년을 살하시고 그 뜻으로 "내가 고깃덩어리를 믿지 말고 네 정신계의, 네 내면의 너 자체를 발견하라. 너 자체를 발견한다면 일체 내 마음도 네 마음이고 네 마음도 내 마음이다. 둘이 아니니라. 그 둘이 아닌 도리를 알 수 있으리라."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삼천 년 전 부처님이 오늘도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이 한 평만 살아 있어도, 풀 한 포기만 살아 있어도 부처님은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부처님 법이 없어지지 않는다 이 소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한 평만 살아 있어도 그 부처는 바로 삼천 년 전 부처가 아니라 내내, 삼천 년 전도 없고 삼천 년 후도 없고 이 세상에 난 게 없기 때문에 갈 것도 없어서 지금까지도 그대로 여여하다 이 소립니다.

그 도리를 아시려면 여러분 자신부터 생각을 잘하세요. 예를 들어서 애깁니다. 내가 관습에 의해서 '이사를 가야 할 텐데 손을 봐야 이사를 가지, 산소를 파서 태워야 할 텐데 손을 봐서 어떻게 해야지.' 이러하는데 이 관습부터 버려야 됩니다. 또 '환갑을 지나야 될 텐데 날짜를 봐야지.' 이렇습니다. 뭐가 그렇게 많든지, 지금 먹고 살기도 귀찮아 죽겠는데 아니, 뭐가 그렇게 많아요?

그러나 내가 그것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굴러서 구정물을 새 물로다 대체해서 쓰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자기로 인해서 그렇게 뿌려진 거를 거둬 수박에 얹는, 독 안에 들어도 못 면하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마음이 오신통이라고 했는데 "오신통도도가 아니니라." 한 것은 뭐냐 하면, 다섯 가지의 그 통 속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오온의 진리 속에서도, 아까 버스라고 그랬죠? 통이라면 그 통 안에서 살고 있던 말입니다. 그런데 그 통 안에서 벗어나야 그 통을 굴리지 않겠느냐 이 소립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길을 가다가 돌맹이 하나를 봐도 그냥 아무렇게나 보지 않습니다. 모두를 내 스승으로 봅니다. 지나가다가 꽃 한 송이를 누가 꺾는 것을 봐도 내 아픔같이 애절합니다. 그러나 사람사람이 차원에 따라서 서로 주고받고 먹고...; 이 세상에 수억겁 전부터 인간이 진화되어 왔다는 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 다른 식물도 나고 죽고 다 그랬지만 우리 인간이 될 때까지 진화된 그 자체가 얼마나 길었겠습니까? 미생물로 태어나 물속에서 허덕거리며 먹고 먹고 물의 시련과 고통을 통해 교훈을 얻으면서 얼마나 뒹굴고 뒹굴어서 육지를 디뎠겠습니까?

그런데 육지를 디뎠다 하더라도 수억겁을 또 거쳐서 인간으로서 모습을 내밀었다 이 소립니다. 그런데 인간으로 내밀어서 그 물속에서, 어항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어떻게 자유인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어떻게 인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돼 가지고도 사람 노릇을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다음 생애 또 그런...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죠. 개 한 마리가 밀이 빠져 가지고 그냥 밭을 줄줄 흘리고 어쩔 수가 없이 살아가요. 원주 경찰서 옆에 있을 때입니다. 거기를 잠시 들렀다가 그 집 개를 봤어요. 그랬는데 내가 보니까 속은 사람이었고 거죽은 개였어요. 내가 걸걸 웃으면서 "너, 개 모습을 해 가지고 나왔으니까 개 대접밖에 못 받겠구나." 그랬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개니까 개 대접밖에 못 받지 무슨 대접을 받겠습니까? 사람이면 사람 대접을 받고 개는 개 대접을 받을 수밖에요. 그래서 그 개더러 그랬죠. 한 수 일러

주었어요. "너, 한생각이면 사람이 될 거야. 한 찰나야!" 하고요. 내 마음을 그 마음에 명명할 처럼 넣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한 시간이 못 돼서 그 개는 죽어 버렸죠.

여러분이 모르실까 봐 또 한 수 얘기해 드리죠. 지나가는 소나 개라 할지라도 주인공에, 한 생각에 둘 아니게 넣어 준다면 그대로 자기가 되는 겁니다. 그대로 자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소는 한 찰나에 인간으로 환생하는 겁니다. 도살장에 끌려간다 하더라도 아프지도 않게 죽는다 이겁니다. 그러나 이 찰나의 환생이라는 게... 그래서 "생사에도 끄달리지 말아라. 생사가 없다는 게 아니라 끄달리지 말아라. 여여하라. 둘이 아닌 것을 알게 되면 영원한 것이니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찰나에 내가 바다를 다 삼킨다 하

그렇지만 당신의 마음이 지극하면 전깃줄과 전깃줄이 맞닿는 순간에 불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죠. "그러니까 너도 한 게 아니고 나도 한 게 아니다. 이게 부처님 법이다. 내가 했다고 할 수도 없고 내가 했다고 할 수도 없다. 내가 없다면 너도 없고 내가 없으면 내가 없으니까 말이다." 이렇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 소리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내 제자들한테는 이렇습니다. "네가 잘났든 못났든 내가 너고 내가 나니까 무조건 뛰어넘어라. 점프를 해라. 믿는 마음이라면 그 통 안을 벗어날 수 있다. 진짜 감응이 된다. 진짜 너를 찾을 수 있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쉽다면 쉽고 아주 어렵다면 몇백 년을 가도 못 나옵니다. 지금 어느 스님한테서 화두를 받으시 뭐 어찌느니 하는데, 예전 시절에는 화두를 받아서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상은 너무 과학적으로 물질세계가 많이 발전이 돼서 아는 게 많기 때문에 아무리 화두를 받아서 하려고 해도 걸들어요. 본래 몰라야 하는 건데 아는 게 많으니까 이

게 걸들지요. 화두 받은 게 그냥 걸도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화두도 지금 다 간수를 못하는데 받은 화두를 또 간수를 하려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이걸 들고 끊어지지 않게 하느라고 절절매다 보면 10년, 20년 가기 아주 똑 잡죠. 허허허...

그럴 때 한편으로 볼 때는 딱하고 한편으로 볼 때는 '야! 천차만별이러더니 참 기가 막히구나. 우습구나.' 이런 생각이 날 때에는 고개를 돌리면서 빙그레 웃고 돌아설 때도 있고요. 눈시울이 뜨거워서 어쩔 바를 몰라서 남들 볼까 봐 감추고 고개를 돌릴 때도 많습니다. 나는요, 내일 죽는다 이따 죽는다 이런 것도, 아무것도 겁이 안 납니다. 천행이가 된다 하더라도 겁이 안 납니다. 왜 겁이 안 나느냐? 권위를 제일 잘하는 사람은 뭐가 척척도 팔짱끼고 있지 겁을 안 냅니다. 그리고 참섭도 안 합니다. 그렇듯이 여러분도 그렇게, 이 마음공부를 안 하시는 안 되는 이유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항아리 속에서 우리는 한 발짝도 떼어 놓지 못하고 지금 살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한 발짝도 떼어 놓을 수 없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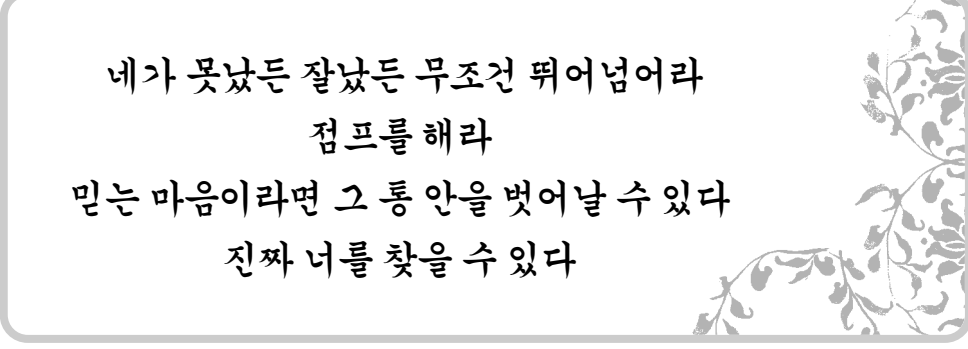
그러면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도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말고, 얼른 쉽게 말해서 지혜롭게 마음을 굴러서 잘 응응을 하시기를 바라면서, 또 생활 속에서 남편이 잘못하고 어떻게 했다고 해서 미워하고 바가지 끊고 그러지 마시고 아주 행동도 부드럽게 하고 말도 부드럽게 하면서 거기 맡겨 놓으세요. 아, 백년가약을 한 친구로 만났는데, 친구로 캠핑을 와서 지금 한바탕 놀다가 그냥 집으로 돌아가면 그뿐이거든요. 그러니 아주 부드럽게 말도 하고 행동도 하면서 '너만인 그렇지 않게 할 수 있잖아!' 하고 거기다 맡겨 놓고 그렇게 해 주란 말입니다. 또 남편도 역시 부인한테 그렇게 하고요.

나는 지금 남편이 어떠한 문제로나, 부인도 어떠한 문제로나 남의 여자를 보고 남의 남편을 보고 이력하는 사람들 좀더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공부하면서 그 후에 알았던 건데, 공존에 이르기까지 전부 그것을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줄 아는 습이 돼 있어야, 아주. 허허허... 그래 가지고 발목이 묶여 가지고 그 습에서 떠나지 못하고, 그냥 새끼를 만 개도 낳고 천 개도 낳고 그 열 개도 낳고 그러면서 그냥 세세생생을 돌아가는 겁니다. 그 항아리 속에 갇혀서 말입니다. 그러나 못났든 잘났든 내가 하나 정했으면 정한 대로 그대로...

우리가 요 모습을 가지고 얼마나 살다가 가겠습니까? 요 모습을 가지고 백 년을 살겠습니까, 천 년을 살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죽는 그 찰나에 다른 모습으로 이 세상에 나오는데 아니, 어떡하라고 그렇게 삽니까. 한 생을 통해서 이 공부를 해 가지고 자기가 진짜 맘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올 때까지는 그런 습은 좀 버리고 여러분이 참담게 참인생을 살고 진짜 자비를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삼촌 산소 깎아 버리듯 그냥 건둥건둥 했습니다만, 여러분이 침착하게 생각하셔서 바로 한생각으로, 얘기해 드린 거를 굴러서 큰 금덩어리의 빛을 만들든지, 우주를 가고 움이 없이 가고 오면서 그냥 한생각으로다가 크게 이루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건 자유니까요.

※ 위 법문은 1994년 3월 27일 국내자원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 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 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라도, 일체 만물을 넣어도 넣어도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영애다가 영을 넣는다고 해서 두드러질 일이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너무 자세히 가르쳐 드리냐? 허허허... 만 개를 집어 넣었다 십만 개를 집어넣었다 해도 영은 영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뭐라고 했느냐 하면 "넣어도 두드러지지 않느니라. 꺼내도 꺼내도 줄지 않느니라."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자세히 가르쳐 드리려면, 마음을 쉼 수가 있겠습니까, 볼 수가 있겠습니까, 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해서 영이라고 해 놓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 소의 영을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근본은 다 똑같습니다. 소가 아니에요. 영, 영입니다. 소가 수십 마리 있는데 수십 마리의 근본을 내 근본에다 집어 넣어도 두드러지지 않는다 이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이구! 여기가 아파서 병원에 가니까 무슨 병이라고 내보내면서, 집에 가서 어떻게 해 보라고 하고 사는 동안 잘 먹고 잘 살라고 합니다. 아,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고 올 때 "내가 의사도 아니고

염불당과 열반지 권선문

불초한 소송의 발우를 들고 원력을 세워 땅 한평 시주 권선을 펴는 바입니다. 경지와 기도터 아주 수려한 곳, 조그마한 토굴산방에서 혼자서 수행정진 하기가 너무나도 아까운 기도도량 터이기에 스님들과 불자들의 염불당과 열반당을 건립하고자 전국에 계신 모든 불자님 원력으로 삼히 동참 하심을 권선문을 펴는 바입니다. 동참하신 이땅은 불교의 유산으로 영원히 남기고져 하오며 불자 제위님들과 다함께 원력을 모아 기도를 바랍니다. 우리 불자님들 모두 성불의길로 다함께 걸어 봅시다. 나무아미타불...

1인 1평 10만원 권선 땅부지(기도처) 3천평. 임금하시고 집주소와 명단을 적어 주시면 천일기도를 올려 드립니다. 불자들의 기도도량이 아주 좋은 곳입니다. 기도하고자 하시는 불자님들께서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 달마가 필요하신 분은 소송의 친필로 그려 기도드린것을 1점씩 보시하겠습니다.

강원도 횡성군 강감면 월현리 31-2 언꽃피는길 황봉 합장 033)342-2291, 010-8660-9449

전국 사찰전문 공급업체

다영보이

순수 자연 야생보이차. 1. 중국 운남성과 접경지역인 베트남 북부 청정지역의 야생차엽을 현지인들이 채취하여 현지 공장에서 제품화하고 수입하여 국내에서 소분, 포장한 제품입니다. 2. 정식 수입통관 절차 및 부산세관 식약청의 무농약·중금속 검사를 모두 통과 하였고 2010년 한국식품연구회에서 무농약 입증검사 실시 통과한 제품입니다. 3. 다영보이는 1996년 약 12년 이상 정성을 다해 산차로 숙성하여 마지막 단계에서 증기로 쪄서 숙차병차로 만들었으며 철저한 관리에 의해 보관하여 부드럽고 깊은 보이차만의 맛과 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50g, 100g, 330g. 산차 45,000원 38,000원, 산차 70,000원 65,000원, 병차 165,000원(500개 한정수량) 99,000원.

• 판매원 : 마하물 02)732-1520. • 제조원 : 다영보이 02)959-8874.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267 토마토파르코오피스텔 1507호. www.dayoungtea.co.kr, www.다영보이.kr

원통 스님의

예불대참회문 DVD 특가 판매

원통스님 해인사 백련암으로 출가 성철 큰스님을 은사로 득도. 지은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 수지. 보성 스님을 전계사로 전계하였고, 1997년 정토원을 건립. 예불대참회문. 대차비로 중생들을 어버비로서 대회대사 베푸시어 제도하시고 수승하신 지혜덕성 장엄하시니 저희들이 정성다해 예배합니다. 자심귀영래 금강상사 귀의불 귀의법 귀의승. 원통스님 예불대참회문 1 SET : DVD 26개 52장.

원순 스님의 몽산법어 DVD

원순스님 몽산법어 : DVD 9장 100,000원. 구입 문의 : 불영TV 김봉환 010-8519-9279 02)2236-7209 http://www.bytv.kr <법보시용 할인가로 판매합니다>

지리산 돼지감자로 만든

"지리산 야생국우차"

자연이 만든 인슐린 돼지감자란? 당뇨병, 류마티스, 골절, 타박상, 해열, 지열, 비만증, 다이어트, 변비에 효과가 있는 천연 인슐린이라 불리는 이눌린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눌린'은 칼로리가 없으며, 위에서 소화가 되지 않아 장으로 내려가므로 혈당이나 혈중 인슐린의 농도가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당뇨병자에게 아주 좋습니다.

• 단 음식을 먹을 때 신경쓰시고 조절하셔야 하는 분. • 식이섬유 섭취 및 몸매관리를 원하실 때. • 조금만 환경이 바뀌어도 몸이 뜨끈뜨끈 해지시는 분. • 부모님 선물로 최고, 어린이 비만치료를 좋습니다.

돼지감자차 판매 문의 남원 선원사. 0502-337-0108 / 0502-338-0108 www.seonwonsa.kr. 농협 301-0041-7701-11(지리산 청소년 예술제)